

仁聖의 딸들아 꿈이 있어라

설립자 목사 **李**

基

赫



人生이 世上에 온것은 내가 오고싶어서 온것이 아니요, 우리집에 태어날 계획을 가지고 온것도 아니다. 다만 왔으니 온것 뿐이다. 그러나 내가 어머니를 통하여 세상에 온 이상에는 만물 중에 최귀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참행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이다. 또 와서는 父母님의 사랑 하시는 품에서 고이

자라서 오늘날까지 이른것이다.

사람이 만물중에 최귀하다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情・意의 三大本能을 타고났고 이 本能을 사람만이 自己의 精力과 努力에 依하여 自由스럽게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 知・情・意의 本能을 가장 善하게 가장 올게 발휘하려면 어릴때부터 좋은 환경과 좋은 분위기중에서 좋은 꿈과 고상한 이상을 품고 자라야 하는 것이다. 만일 꿈이 너저분하면 그 사람도 너저분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요 꿈이 크면 그 사람도 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꿈을 품는것 만큼 그 인격은 정비례하는 것이다. 그리고 꿈이 만일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금수와 차이도 별로 없는 인간이라 할것이다. 도대체 꿈이란

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하면 생리학적 혹은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때에는 그 원인이 낮에 깨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사물에 접촉하고 생활상 여러 방향으로 생각과 염려하던 의식이 마음속에 잠재해 있다가 잘 때에 꿈으로 나타나는 잠재의식의 발로라고 보통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면 사람이 어렸을 때에 미래를 꿈꾸고 이상을 품고 자라서 장성할 때에 그대로 성취해 나가는 것을 소위 젊었을 때에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에는 좋은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낳던 보람을 주고 가는 것이 떳떳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함이 될 것이다.

나는 이제 내 경험을 가지고 자그만한 참고 재료를 제공코져 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런고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힘써 보았다.

또 교회에 재미를 붙이고 교회생활에 즐거움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나도 여러 학생들과 같은 때에 꿈을 가져 보았다. 내가 자라서 이러한 사람이 되고 이런 일을 해

보겠다고 후에 목사가 되어 교회일을 시작할 때에 나의 꿈의 일부분인 종교 교육 사업에 착안을 했다.

고향에서도 학교 설립에 주력해 왔지마는 지금부터十八년전에 공산당에게 모두 빼앗기고 월남하여 안천에 와서 이제 一교회를 담임한 후 첫 번으로 유치원을 설립했고 무궁화 공민학교 인성중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점차적으로 주력한 것이다.

인성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十三년전의 일이지마는 내 마음속에 이 꿈은 벌써 四十여년전 여러분처럼 어릴 때에 가졌던 꿈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그 때에 이런 이상이 내 머리에 떠올랐다. 우리나라가 바로서고 우리 자손들이 억만대에 복받을 민족성으로 키워지려면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기초이니 만큼 먼저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성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기르는 책임과 기능을 타고 나는 고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여성만 바로서면 그 민족의 장래는 의심 없이 행복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학교를 설립하기에 총력을 기울이신 이들은 제 一교회의 여러 장노님과 여러 집사님들과 교회

전체가 합심했고 우리학교 여러 직원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학교는 아직도 미완성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이르는 것도 우리의 형편으로는 더할 수 없는 역경과 곤란을 겪었고 형언할 수 없는 사회악을 경험하면서 책임자들의 눈물과 피땀호른 결과인 것을 우리 학생들은 특히 알고 지내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딸들이 사람되기 가장 위기이며 가장 필요한 이 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과 가장 고상한 분위기를 조성한 아름다운 학원을 이룩하여 제공하여야 우리대한의 딸들 가슴에 높고 훌륭한 꿈을 품고 자라나리라고 해서 애써 온 것이다.

정성이 쌓인 곳에 무슨 일이던지 못이룰 것이 무엇이랴! 지금 와서는 우리도 알 수 없는 사이에 일반사회는 물론 정부 각 기관과 감독당국, 또 교재 교육제에서 우리학교의 발전을 극구 칭찬하며 직원과 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한 칭찬과 영예를 선전해 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 당국자들은 더욱 분발하여 교사를 완성하며 시설을 완비하여 교육 이념에 유감없는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며 위대한 국민을 양성함에 선봉서려고 하는 것이

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仁聖의 딸들이 위대한 꿈을 품고 잘 자라거라 그리고 仁聖을 높이 자랑하고 넓게 빛내거라 그리하여 우리 仁聖으로 하며 금위인, 영결, 현인, 군자, 사도들을 많이 배출하는 「產室」이 되어서도록 결사 맹서하자.

우리들은 큰 꿈, 거룩한 꿈을 마음껏 품고 씩씩하게 자라자!

... 韓國詩人名言集 ...

어느 時代에도 그 現代人은 絶望한다.
絶望이 技巧를 낳고 技巧 때문에 또 絶望한다.
— 李 箱 —

사람이 비밀이 없다는 것은 재산이 없는 것처럼 가난하고 허전한 일이다.
— 李 箱「失花」 —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은 주검이 아니라 葬禮式이다.
— 朴 寅 煥 —

무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외로움을 안다.
그러나 이 외로운 사람들끼리 또 하나의 무리를 서로 감지(感知)할 때 이미 외로움은 외로움이 아니다.
— 趙 炳 華 —